

주제회의
- 사회적경제

WITH 코로나시대, 호혜의 사회적경제로 지역과 동행하다

김재경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하반기로 진입하는 9월초인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90만명 이상의 목숨을 뺏아갔고 공장·기업·학교·시장에서의 ‘소중한’ 일상은 거의 멈춰있다. 얼어붙은 경기탓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인들 모두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계속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매우 쉽지않아 보인다.

공간에서는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우리 코로나19 출구전략이 아닌 WITH코로나 시기에 있으며, 그 동안의 우리의 가치와 지향, 지금까지의 서있는 자리와 상황을 총체적으로 돌이켜봐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2020년 상반기에 회자된 코로나19 ‘출구전략’은 이제 임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전략이 아닌, 상시적인 대응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각자의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본 글은 대구에서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직후인 2월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의 대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을 추적한다.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이 재난의 시작을 사회적경제인들은 어떻게 ‘함께’ 대응했고 이후 어떤 노력을 지향하면서 WITH코로나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기술할 것이다.

대구의 코로나19 경험과 공동체적 대응: I. 봉사와 나눔¹⁾

대구는 2월19일 신천지대구교회 출신 환자의 무더기 전파사례가 알려지면서 고립무원의 지역으로 전락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3월15일까지 확진자수가 6,000명을 넘었고, 대구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코로나19는 대다수 사회적경제기업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기업비즈니스를 거의 중단시켜, 대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다. 다수의 기업들은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고, 일부는 인력조정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은 주변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당면문제에 눈을 돌렸다. 감염공포가 매우 심했던 2,3월은 현실적으로 모임이나 단체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자발적으로 나눔활동을 시작했다.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마스크나 도시락 등의 필수품들을 빠르게 전달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인, 위축된 대구시민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진행하였다. 대구소재 그 어느 기업이아 기업협의체도 시작하지 않은 일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가장 먼저 실천하였다.

처음엔 SNS(카카오톡 단톡방 혹은 밴드)를 통해 나눔방법을 제안하였다. 평소에 활용한 내부단톡방을 이용해 소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군별 협의회와 시단위 협의체(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연합회)도 연대의 힘을 모아 대응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행렬은 노숙인, 쪽방근로자, 미등록이주민, 미혼모,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및 결식아

1) 본 장은 다음 기초자료를 참조하였다. 전인·박여진·배성경, 2020, “INTO the Unknown COVID-19 어둠을 밝힌 사회적경제의 善(SUN)한 빛”, 미발행원고.

동 등의 취약계층이외에도 대구시민,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도미노처럼 이어졌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스스로도 연대활동속에서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도전에 내부적으로는 집단적 토론의 방식으로, 외부적으로는 촘촘한 호혜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생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모금활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은 화폐로 환산될 수 없는 봉사 및 나눔활동이 더 많으나 화폐화된 모금액만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단순현금기부금액은 약 7천9백만원에 이른다.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소속 28개 회원사를 비롯, 유관기관 및 개인들은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에 4300여 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초자치단체 단위 사회적경제협의회(수성구, 달서구)에 소속된 회원사들은 해당 협의회에도 기부하여 50,269천원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기부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한 금액도 2억2천여만원이다. 수혜대상들은 행정 전달체계 밖에 존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나, 고생하는 의료진들이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서비스 외에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지만 구입할 수 없었던 물품수요를 찾아내 해당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특정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을 고용 기업운영을 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해당 수혜자들과 ‘평소에’ 교류할 수 있었고, 수혜자들이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이들 계층을 위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전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6천 8백만원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기부와 후원은 전달체계상 기부자,전달자,수혜자를 거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피드백이 제공되기가 어렵다. 즉, 수혜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연계하는지, 제공된 물품이 수혜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 등으로 상용적 연계지점이 있어, 취약계층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제공할 수 있었다. 즉,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행정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사회적경제인들은 다양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과도 연계를 맺고 있어서 유사문제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배송에도 참여하였다.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하였는데, 특히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진과 청소년, 이주민, 결식아동,병원, 중소기업 등 다수기관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면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들을 잇는 중요한 유통망 역할을 수행하였다.

개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자신의 조직을 넘어 주변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시간을 겪었으며,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위기상황에서 공생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본연적’ 역할을 고민하면서,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방향과 사업으로의 전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전환의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대구의 코로나19 경험과 공동체적 대응: II 조직화된 대응

코로나19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화를 촉진하였다. 코로나사태가 터지자 개별 기업 및 구군단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은 현장에서 진행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들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현재 경영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등 사회적경제 공동의 목소리를 대구시와 정부에 전달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졌다.

대구의 장점인 지역의 민관거버넌스활동이 서서히 시작하였다. 이미 2015년부터 꾸준히 구축된 민민네트워크는 부문별, 업종별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모색하고 있던 바, 코로나19를 계기로 부문별, 지역별 경계를 넘어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민관네트워크(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부문, 지역별협의체)를 활용, 3월초에 시작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실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축된 DB를 기반으로, 민관공동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동시에 업종별, 기업별 TFT를 구축하여 위기타개방안을 넘어, 단기지원책과 중장기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공동의 활동속에 2019년부터 준비한 대구사회적경제연대조직인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가 ‘사회적경제대응TFT’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구체적 활동으로는 1) 사회적경제 기업 실태조사, 2) 스스로 기금 및 물품 모으기, 3) TFT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 이슈 발굴, 지원전략 및 지원이행, 4) 중장기적인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의 전환방안 모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권 밖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인들의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알려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인건비, 프로모션 지원 등의 단기적 기업경영 개선 및 활성화 지원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사회적경제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속히 만들어 시와 논

의, 무한상사를 활용, 신청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으로, 방과후 돌봄업체 및 학교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긴급 프로모션 지원도 진행하였다

이후 5월에는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대구사회적경제조직을 통괄적으로 아우르는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²⁾가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하기에 이른다.

대구의 코로나19 경험이후 공동체적 대응: 더 지역속으로

이번 코로나사태를 기점으로 해 대구사회적경제인들은 지역에서의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조직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 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프로세스가 그것을 보여준다. 대구사회적경제조직들은 서두르지 않고 투명하게 단계적으로 소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당면문제에 대응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더 많이 사회를 경험하면서, 재난상황에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체 활동의 특성을,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확장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중요한 공동체경제주체로서의 자리매김도 확인되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창출과 효율적 복지실행수단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일상의 생활문제를 동네단위, 지역단위에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공동체활동속에서 위로와 연대로 삶의 활력과 인간적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거점역할도 했다. 이번 코로나때 활동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주민들과 더 많은 접점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사태의 여파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 낙관적인 전망도 쉬이 내릴 수 없다. 계속해서 기업별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가동시켜 시급히 운용가능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코로나사태가 촉발시킨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와 충격을 줄이는 대응만 찾기에 역부족이지만,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늘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가 가져야 하는 사회적 유용성과 자발성의 가치를 잘 살려내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호되는 사회를 잘 만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해야 한다. 대구에서 보여준 지역에서의 다양한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들간의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연결고리의 형

2) 가입조직은 다음과 같다.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중구사회적경제협의회, 수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광역시 자활기업협회, 대구·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협의회,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자활센터, 대구사회적경제연구자네트워크, 사회적경제활성화대구네트워크,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성, 나눔과 지원,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협업활동은 지역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활동이다. WITH코로나시대에는, 점점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돕겠다는 자조의식과 이를 도와주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몫이 있음은 틀림없다.

또한 재난, 안전, 돌봄, 생태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고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IT, 골목상권, 도시재생 등과도 연계해 호혜적 사회적경제가 우리 삶에 안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도 융복합적 방식으로 발굴, 연결해야 한다. 크고작은 사업적 연대를 통해 신뢰를 쌓고 지역에 협력을 안착시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와 지역력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지역거버넌스는 늘 협력의 유용한 도구이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보호하는 사회적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이다. ‘지역’에 기반한 ‘의제’중심의 다양한 연대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김재경, 2020, “코로나 19 위기속 사회적경제의 대응”, 『생협평론』 39호(2020 여름호).
전인·박여진·배성경, 2020, “INTO the Unknown COVID-19 어둠을 밝힌 사회적경제의 善(SUN)한 빛”, 미발행원고.